

“광주시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 헛구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친화도시’가 헛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현(새정치·서구 2) 광주시의원은 17일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UN 어린이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 상태인 중외공원의 어린이 공원의 현실 등을 보면 ‘헛구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서울과 대전·대구·부산에 있는 어린이회관이 광주에는 없다. 특히 1980년 시민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조성된 중외 어린이공원조차 명칭이 무색할 정도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국민 성금 등으로 조성한

중외 어린이공원 방치

어린이 회관 조차 없어

는 낡은 놀이기구 몇 대 뿐이고 관리마저 방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광주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형과 놀이공간이 사실상 전무하고 양정현 광주시장의 4개년 계획 어디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관을 앞둔 아시아 문화 전당에 어린이문화원이 건립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김보현 시의원

“이와는 별도로 시가 어린이회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외 어린이 공원은 1980년 5월 시민희생에 대한 국민성금 32억400만원과 도민성금 5억원, 행정지원금 13억원 등 총 56억6700만원의 자금과 고 김남중 광주일보 회장이 기증한 20만㎡의 토지가 기반이 돼 추진됐다.

이후 1980년 어린이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됐

고 1986년 공원조성 기본설계가 이루어졌으나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 미술관 등이 입지하며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

한편 서미정(새정치·비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형 복지모델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키즈공유센터가 시청 내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빛고을키즈공유센터는 8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6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용품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순환으로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3년 11월 시작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지방분권추진협 발족

중앙 권한 지방이양 등 앞장

전남도가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식과 창립총회를 갖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사무 이양 발굴에 적극 나섰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과 관련 사업의 평가 등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낙연 지사는 창립총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20여년이 지났지만 인사와 재정 등 많은 분야에서 중앙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크다”며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이런 상황을 바로 잡고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대 협의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그 주인인 지방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며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탈피하고 지방이 행복한 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 모두가 사명과 열정을 갖고 활동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취업박람회

취직 여성 92%

월급여 150만원 미만

전남도가 주관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직장을 구한 여성 가운데 한 달 15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최한 목포권 취업박람회서 직장을 구한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화 설문조사 결과 매달 받는 임금은 100만원 미만인 30.7%(62명·평균 4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 10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32.7%(66명), 12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8.7%(58명),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11명), 200만원 이상 2.5%(5명)였다.

또 전체의 45%인 99명이 6개월 내에 직장을 그만뒀으며, 1~3개월 내 직장을 떠난 여성은 전체 취업여성의 35.6%(72명)에 달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음(28명), 타직종 이직(14명), 가족 돌봄(14명), 계약기간 만료(9명), 건강문제(8명), 적은 월급(6명) 등이었다.

다만 취업한 여성의 70.2%(142명)는 취업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직무소양교육을 운영하는 등 취업 여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기준 이상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행감 인물-김동찬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감사 위해 대전·대구 방문 재정 비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찬(새정치·북구 5)의원이 제7대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와 관련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동안 ‘나홀로’ 대구와 대전, 세종시 등 총 600여km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의원이 이처럼 이틀간 강행군을 펼친 것은 광주시와 재정 규모 등이 비슷한 대전과 벌써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나서는 대구시의 재정문제 및 수요예측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대구와 대전의 사업 추진을 한번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출장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안용모 도시철도본부장을 만나 재정지원금 등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시승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구도 3호선 건설당시 80%의 시민이 반대했지만, 대구의 발전과 녹색도시로의 대중교통정책은 도시철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득한 결과 3호선을 건설하게 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도 도시계획 측면과 시민들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17일 일본 요코하마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일본 기업들과 1036억여원의 투자·수출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日 기업과 1천억 투자·수출 협약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첫 해외투자유치 성과

일본 기업의 물류기지과 제조공장이 광주지역 공단에 들어서고,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이 광주에서 만들어진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취임 이후 첫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광주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17일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첫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서 일본내 기업들과 1036억 8000만원의 투자·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요코하마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체결된 투자·수출협약은 투자협약이 3건 136억 8000만원, 수출협약이 1건 900억원 등 총 1036억 8000만원이다.

투자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인 (주)노루오토코팅은 일본 최대의 페인트 회사인 일본페인트

(주)와 공동으로 50억원을 투자, 기아자동차 등 협력업체에 자동차용 페인트 공급을 위해 진곡산단 내에 도로 물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지역업체인 (주)케이테크는 일본 치바현에 있는 철판제작 및 가공업 주력회사인 코우요우시와 40억원을 합작 투자해 건축플랜트(철구조물) 제조공장을 평동공단내에 설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스튜디오터뷰유바바(주)와 일본의 (주)토츠엔 테이먼트는 46억8000만원을 투자해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양사는 애니메이션분야 기획·제작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주 평동산단에 있는 (유)케이테크코리아는 철구조물을 일본 건설업체에 도급순위 1위인 시미

즈건설(주)에 3년간 900억원의 물량을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실은 광주시가 일본기업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을 선정해 입지선정에서부터 인센티브 제공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맞춤형 투자교섭을 진행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6기 투자유치 기조를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투자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명예투자유치자문관제를 운영하고, 해외 호남향우 기업인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협약식에서 “광주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기업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오늘의 결정이 훌륭한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지원 인프라를 정비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잘 갖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어, 대형세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의 11종

대형 세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시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시·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